

하나의 텍스트로 다시 읽는 조이스 소설

임 재 오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는 『더블린 사람들』(*Dubliners*),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율리시스』(*Ulysses*),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 등의 그의 주요 작품들에서 상호텍스트성을 극대화하여 작품과 작품 간의 간격을 허물고 열린 결말을 제시한다. 조이스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을 상호텍스트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들을 상호텍스트로 삼는 독특한 서술전략을 구사한다. 개인적 상호텍스트성이라고 불리는 후자의 전략을 통해서, 조이스는 자신의 소설미학을 개별적인 작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열려 있는 작품들 전체로까지 확장하게 된다.

조이스는 소설을 창작하면서 이미 씌어진 자신의 작품들에서 주제와 작중인물을 빌려온다.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의 주제는 조이스의 모든 작품들을 관류하는 주제이다. 『율리시스』의 「떠도는 바위들」("Wandering Rocks") 에피소드는 특히 이피피니의 순간을 통해 마비의 주제를 현시할 뿐만 아니라 '주도면밀한 천박한 문체'(L II, 134)로 씌어진다는 점에서 『더블린 사람들』과 아주 흡사하다. 『초상』의 소외의 주제 및 정신적 부성 추구의 주제도 『율리시스』에 이르러 완결

이 된다. 『더블린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The Dead")에서 게이브리엘(Gabriel)이 보여주는 삶에 대한 자아인식은 『초상』의 스티븐 데달러스(Stephen Dedalus)의 예술가적 자아인식을 향해 열리기도 한다. 『초상』의 주인공인 스티븐은 『율리시스』에 다시 등장하여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된다. 『더블린 사람들』의 「자매들」("The Sisters")과 「애러비」("Araby")에 나오는 소년도 스티븐을 연상시키는 인물이다. 게이브리엘은 오쟁이진 남편이라는 점에서 『율리시스』의 리오폴드 블룸(Leopold Bloom)과 유사하다. 『초상』에서 클론고즈 우드 칼리지(Clongowes Wood College)의 교장으로 등장하는 콘미(Conmee) 신부는 『율리시스』에 재등장하는 인물로서 더블린의 종교적 타락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블린 사람들』의 「자매들」에 나오는 플린(Flynn) 신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피네간의 경야』의 쉘(Shem) 역시 미숙한 예술가라는 점에서 스티븐을 반항하는 인물이다. 심지어 『율리시스』의 블룸과 몰리(Molly)는 각자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여성의 생명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피네간의 경야』의 험프리 침든 어위커(Humphrey Chimpden Earwicker)와 아내 리비아 플루라벨(Anna Livia Plurabelle)이라는 인물들과 닮아 있다. 조이스는 이렇게 그의 작품들 간의 상호텍스트적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더블린 사람들』, 『초상』, 『율리시스』, 『피네간의 경야』 등을 미학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텍스트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 논문에선 이와 같이 조이스의 소설들이 단편 결말이 아닌, 열린 결말을 제시함으로써, 텍스트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텍스트로 다시 읽을 수 있는, 독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여 역동적인 소설미학을 창조하는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더블린 사람들』의 종결부인 「죽은 사람들」은 다른 단편들에서 활용된 서술 기법과 전략들이 다시 반복되어 작품 전체의 구조적 통합을 성취하는 동시에, 대화와 내면독백 등이 혼합된 새로운 서술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후자의 ‘주도면밀한 천박한’ 문체와는 달리, 시적이며 음악적인 문체로 씌어지고 있다. 「죽은 사람들」에서는 또한 앞선 단편들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이퍼피니들에 의해 창출된 마비의 미학이 전자의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더욱 역동성을 띠면서 주인공인 게이브리엘의 자아인식에 대한 비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죽은 사람들」 자체에서도 눈, 서부, 죽음 등의 반복되는 이미지는 다른 세목 및 메타포와 연상적으로 결합되어 유기적인 미학적 구조를 형성하면서, 게이브리엘이 자기 중심적인 감정을 벗어나 그레타(Gretta)와 마이클 퓨리(Michael Furey)의 관계를 통

해 깨닫는, 결말부분의 최종적 이피퍼니의 순간을 마련하는 점층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게이브리엘은 조이스의 자기 반영적 성격을 지닌 예술가라는 점에서 「참혹한 사건」("A Painful Case")의 더피(Duffy)를 제외한 『더블린 사람들』의 다른 단편들의 주인공과 차별화된다. 다시 말하면 게이브리엘은 예술가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지적이며 내향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피퍼니 역시 다른 주인공들의 그것보다 더욱 예술적인 언어로 현시된다. 특히 「죽은 사람들」의 결말부분은 게이브리엘의 예술적 수완에 의해 시적인 언어로 질게 물들어 있다. 그러나 그의 시적 언어는 오히려 과장된 표현으로 그의 감정의 불모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게이브리엘은 「죽은 사람들」의 전반부에서 속물성을 거부하는 릴리(Lily)와 ‘새로운 관념과 새로운 원칙에 자극을 받은 새로운 세대’(D 203)로서 그의 위선성을 폭로하는 아이버스(Miss Ivors) 등과의 갈등을 통해 자신의 자기중심주의적 관점을 수정할 기회를 부여받긴 하지만 그것의 불모성을 진정으로 깨닫는 데 실패한다. 그는 그레타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여전히 자아인식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D 220)라는 그레타의 낭만적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게이브리엘은 그녀에게 있어서 퓨리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의미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의 사랑이 내포하는 진실과 모순된 것일지도 모르는 이피퍼니의 순간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죽은 자들의 무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점점 다가가는’(D 223) 그의 영혼을 통해 게이브리엘의 예술가적 이피퍼니가 드러내는 본질의 발현이 그의 시적 상상력을 통제하고 있다고 본다면(Day 361), 그가 깨닫는 이피퍼니는 그의 상상력의 범위 안에서는 인간성의 참된 친교에 대한 깨달음과 다를 바 없다.

마비의 현시라는 주제의 변증법적 반복에 의해 구조화되는 『더블린 사람들』의 소설미학은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이피퍼니에 의해 완결이 된다. 여기에선 「죽은 사람들」에서 거듭되는 ‘눈’의 이미지를 사용한 상징주의 기법을 통해 게이브리엘의 예술가적 이피퍼니의 의미가 더욱 뚜렷이 부각되게 된다.

유리창을 몇 번 가볍게 치는 소리에 그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은빛이 나는 까만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을 배경으로 비

스듬히 내리고 있는 것을 졸린 듯 지켜보았다. 서부로 여행을 떠날 때가 왔다. 그렇다, 신문이 옳았다. 눈은 아일랜드 전역에 내리고 있었다. 눈은 검은 중부 평야의 구석구석에, 나무 없는 언덕 위에 내리고, 앨런의 늪 위에도 소리 없이 내리고, 더욱 먼 서쪽 사눈강의 거칠고 검은 물결 위에도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눈은 또한 마이클 푸리가 묻혀 있는 언덕 위 쓸쓸한 묘지의 구석구석에도 내리고 있었다. 비뿔어진 십자가와 묘비 위에도, 조그마한 대문의 창살 위에도, 메마른 가시나무 위에도 눈을 바람에 나부끼며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우주 전체에 사뿐히 내리는 눈 소리, 그들의 최후의 내림처럼 모든 산 자와 죽은 자 위에 사뿐히 내리는 눈 소리를 듣자, 그의 영혼은 서서히 이루어져 갔다.

(D 223-24)

「죽은 사람들」 전반에 걸쳐서 눈은 게이브리엘의 의식의 변화과정을 드러내는 상징적 이미지로 활용이 된다. 서두 부분에서 게이브리엘이 눈을 털어내고 그레타에게 덧신을 신기를 강요하는 행동을 통해 드러나듯이, 눈은 자기중심적인 그의 의식을 표출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쓰일 뿐이다. 그러나 아이비스 등과의 갈등을 통해 게이브리엘이 진실한 자아인식에 점차 접근해가면서, 눈은 그에게 외부로의 탈출을 상징하는 긍정적 이미지로 변모함으로써 결말부분에서 그것의 포괄적인 상징주의적 역할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위 이피피니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를 상징하는 ‘서부’의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죽은 사람들」의 중심적 이미지인 눈은 세계에 대한 게이브리엘의 새로운 인식과 부활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게이브리엘의 이와 같은 자아인식은 그것을 초월하는, 조이스 자신의 섬세한 예술적 비전이라고 할 만하다. 조이스는 시적 심상이 짙은 언어구사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게이브리엘의 이중적 역할, 즉 영원성의 창조자이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익살광 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Bowen 109).

결론적으로 게이브리엘을 비롯한 『더블린 사람들』의 각 단편들의 주인공들이 깨닫는 이피피니 과정 자체는 계시의 진실성이나 허위 여부를 초월하는 예술적 고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Bowen 110). 특히 『더블린 사람들』을 달고 있는 「죽은 사람들」에서의 게이브리엘의 예술가적 자아인식은 조이스의 다음 작품인 『초상』의 스티븐의 예술가적 자아형성 과정을 향해 열림으로써, 그의 텍스트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가의 새로운 글쓰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초상』에서 조이스는 자신의 분신인 스티븐의 자의식적 소외과정을 변증법적

리듬의 반복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그가 지향하는,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간접적으로 표출한다. 이 소설에서 폭넓게 전개되는 미숙한 예술가로서의 스티븐의 역할은 제 4 장의 결말부분에 나타나는 해변에서의 이피퍼니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스티븐의 새로운 의식과 예술가적 운명을 시적 이미지로 충만한 문체로 다시 일관성 있게 현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선 비상을 상징하는 새의 이미지를 통해 깨닫는 스티븐의 지속적인 이피퍼니가 거듭 사용되어 그것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돌란(Dolan) 신부와의 갈등 이후에 분수대의 물방울을 통해 깨닫는, 스티븐의 승리와 자유의 이피퍼니가 재창조됨으로써 예술가적 이피퍼니로 변용되어 나타나게 된다.

물결 한가운데 그의 앞에 한 소녀가, 혼자 조용히, 바다를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녀는 미술이 이상하고 아름다운 바닷새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을 닮은 듯했다. 그녀의 길고 가느다란 벌거벗은 양다리엔 학의 그것처럼 섬세했고 에메랄드빛 한 줄기 해초가 살결 위에 도안을 그려 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온통 순결하게 보였다. 몹시 부풀고 상아처럼 부드러운 빛깔의, 그녀의 허벅다리가 거의 엉덩이까지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하얀 깃 장식을 두른 그녀의 속옷은 마치 부드럽고 하얀 솜털의 깃을 닮았다. 그녀의 청회빛 치마는 허리 주변까지 대담하게 걷어 올려졌고 뒤쪽으로 비둘기의 꿩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가슴은 새의 그것처럼 부드럽고 가냘팠고, 검은 깃털의 비둘기의 앞가슴처럼, 가냘프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칼은 소녀다웠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 또한 소녀다웠고, 경이적인 인간의 아름다움으로 감돌았다. (P 171)

해변의 이피퍼니에선 바다의 잔물결 속에 서 있는 소녀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가장 두드러진다. 그녀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바닷새’에 비유된다. 또한 바닷새의 이미지 이외에도 ‘학’과 ‘비둘기’ 등의 새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거듭해서 제시된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안고 ‘생명의 정결한 궁전으로부터 온 야생의 천사’ (P 172)는 스티븐에게 태양을 향해 돌진한 이카로스(Icarus)처럼 바다를 건너 새로운 언어를 향해 비상하라고 촉구한다.

스티븐이 이상과 같은 해변의 이피퍼니에서 학의 다리와 비둘기의 모습을 동시에 지닌 바닷새로 변형된 소녀의 아름다움을 시적인 언어로 창조할 수 있음은 그의 예술가로서의 성장의 가능성을 여는 것임에 다름아니다. 스티븐의 자아추구

의 대상이 성모의 천상의 미로부터 바닷가 소녀의 지상의 미로 변모하는 것은 그의 소명이 성직자의 길이 아닌 예술가의 길임을 스티븐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해변에서 깨닫는 이피퍼니는 소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세속적 인식을 초월하는, 스티븐 자신의 본질적인 예술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이피퍼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상』의 제 5 장에서 스티븐은 ‘제비’의 비상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망명을 깨닫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새로운 언어를 향한 비상과 다를 바 없으며 예술가적 소명을 깨닫는 해변의 이피퍼니에서 현시된 다이달로스(Daedalus)적 비상과 구조적 통합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초상』의 종결부인 제 5 장의 결말부분에서는 이제까지 견지해 온 3인칭 서술 지점이 일기 형식을 취한 1인칭 서술시점으로 갑자기 전환된다. 이와 같은 서술시점의 급격한 전환은 수잔 랜서(Susan S. Lanser)의 지적처럼 화자를 텍스트로부터 제거시키고 미숙한 예술가의 최종적인 초상을 창조하면서 성숙기에 접어드는 스티븐의 정체를 더욱 명백하게 밝히기 위한 조이스의 의도적인 서술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Lanser 418).

4월 26일. 어머니는 새로 장만한 내 중고품 옷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녀는 내가 집과 친구를 떠나 나대로 객지에 가 살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느끼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기를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아멘. 그렇게 되길. 환영하도다, 오 인생이여! 나는 경험의 리얼리티에 백만 번이고 부딪치기 위해 떠나며 나의 영혼의 대장간 속에서 민족의 아직 창조되지 않은 양심을 버리기 위해 떠나가노라.

4월 27일. 늙으신 아버지시여, 늙으신 공장(工匠)이시여,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를 도와주소서. (P 252-53)

조이스는 『초상』을 마무리하는 일기문을 통해 열린 결말을 제시한다. 스티븐, 아니 조이스는 망명을 통해 ‘경험의 리얼리티’에 수없이 부딪치면서 자신의 상상력으로 ‘민족의 아직 창조되지 않은 양심’을 담은 새로운 예술작품을 버리게 될 것이다. 『초상』의 스티븐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잠재적 예술가임은 분명하다. 그가 아카르스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무의식적인 아이러니(Peake 107)가 그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조이스는 결코 미숙한 예술가는 아니다. 조이스는 『초상』에서 이피퍼니를 비롯한 다양한 서술기법과 문학적 전략을 치밀하게 융합하여 성숙된 구조적

미학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조이스의 글쓰기가 여기에서 닫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초상』에 이어지는 『율리시스』에서 새로운 글쓰기를 통해 또 다른 소설미학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율리시스』의 제18 에피소드인 「페넬로페」("Penelope")는 조이스가 버즌(Budgen)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듯이 ‘육체의 시학’을 완결하는, 이 소설의 두 말 할 나위 없는 ‘중심’(clou)이다(SL 185). 이 에피소드는 구두점과 서술이 없이 마치 강물처럼 흐르는 물리의 길다란 내적 독백으로 씌어진 8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데, ‘8’이란 숫자는 무한대와 성모를 상징하는 것으로서(Van Boheemen-Saaf 94) 물리의 성격을 요약해준다. 그리고 여성의 단어인 ‘yes’로 시작해서 ‘yes’로 끝나는 물리의 독백은 나선형으로 꿈틀거리는 역동적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율리시스』의 긍정의 주제를 뚜렷이 부각시킨다. 또한 「페넬로페」에 주도면밀하게 배치된, 여성의 육체의 주요부분을 상징하는 'because', 'bottom', 'woman', 'yes'라는 단어들은 이 에피소드가 여성의 육체로 씌어진 것임은 물론 『율리시스』의 미학이 다름 아닌 육체의 시학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성의 육체란 바로 물리의 육체를 말한다. 따라서 「페넬로페」는 그녀의 사고와 육체로 씌어진 것에 다름 아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대지의 여신’(Gea-Tellus, Gilbert 430), 물리는 바로 자신의 육체로 씌어진 「페넬로페」의 문체에 의해 찢어지고 풀려지면서 블룸과 스티븐을 그녀의 육체의 세계로 포용함으로써, 그들이 각자 『율리시스』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제 17 에피소드인 「이타카」("Ithaca")에서 스티븐과 블룸의 시선이 물리에게 수렴되는 순간을 통해 예고된 것이다.

가시적인 환한 신호, 즉 램프에 의해 나타난, 불가시적이며 매력적인 한 인물,
즉 그의 아내 마리언(물리) 블룸의 신비를 그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구두상의 언급 또는 단언으로 : 억제된 애정 및 감탄으로
: 묘사로 : 말더듬으로 : 암시로. (U 17.1513-17)

블룸은 「에우마이오스」("Eumaeus")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에게 ‘몸집이 커다란 한 귀부인이 육체적 매력을 드러내는’(U 16.1437-38) 물리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이클레스(Eccles) 7번가로 그를 유혹한 바 있는데, 전자는 결국 『율리시스』에서의 방랑을 끝내고 귀환하여 후자를 물리의 육체로 인도함으로써 그의 정신적 성숙을

도와주는 동시에 자신도 물리의 자궁 속을 찾아 들고자 하는 것이다.

물리는 스티븐을 11년 전에 죽은 루디(Rudy)와 동일시하면서 블룸이 스티븐에게 부성적 사랑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성애를 느끼고 그를 통해 새로운 아이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자신의 육체의 문을 연다. 그녀는 상상 속에서 스티븐과 육체적 결합을 함으로써 여성과의 화해를 갈망하는 그를 받아들인다.

나는 그의 몸 전체에 키스하고 싶은 욕망을 이따금 느꼈어요 또한 그의 예쁘게 생긴 고갯에도 말이야 너무나 순박한 것이죠 나는 고갯을 입에 넣는 걸 상관치 않겠어 만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말이야 마치 고갯을 핥아 달라고 바라기나 하는 듯 너무나 깨끗하고 하얀 것이 그이는 옛된 얼굴로 쳐다보았지 나도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어 2분의 1분 동안은 말이야 약간 마신다 하더라도 해될 게 뭐람 그건 단지 묶은 죽이나 이슬 같은 거야 위태로울 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그이는 저 돼지 같은 사내들에 비하면 너무나 깨끗할 거야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년 내내 한 번이라도 그것을 씻을 꿈도 꾸지 않는 것 같단 말이야 그 때문에 여자들에게 코밑수염이 생기는 거지 확실히 내 나이에 잘생기고 젊은 시인을 손안에 넣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거야 (U 18.1351-59)

물리는 스티븐의 순수하면서도 불모의 정신적 세계를 그녀의 풍요한 다산의 육체적 세계로 포용함으로써, 스티븐이 자궁 속에서 육화된 말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그녀의 자궁 안에서 스티븐을 시인으로 양육하는 포용성을 보여주는 물리는 양성 동체적 남성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여성적 원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French 259). 이제 스티븐은 비록 상징적이긴 하지만 물리의 사랑과 긍정을 통해 그를 구속해 온 어머니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 여성과의 화해를 성취하고 성숙한 예술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율리시스』의 마지막 말인 'yes'는 조이스의 치밀한 예술적 전략에 의해 물리에게 남겨진다. 물리는 다음과 같은 내적 독백을 통해 서정적 환희에 가득 찬 블룸과의 육체적 재결합을 노래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이 'yes'라는 말로 『율리시스』를 끝맺음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삶을 수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한다.

오 그리고 바다 때때로 불같이 심홍색으로 타는 바다와 저 찬란한 황혼 그리고 알라메다 식물원의 무화과나무 그렇지 또한 온갖 괴상한 작은 거리들이나

핑크색 푸른색 및 노란색의 집들이나 장미원들이나 자스민과 제라늄 및 선인장들이나 내가 소녀로서 야산의 꽃이었던 지브롤터 그렇지 내가 저 안달루시아 소녀들이 항상 그러하듯 머리에다 장미를 꽂았을 때 그렇잖으면 난 붉은 걸로 달까봐 그렇지 그리고 그이는 나에게 저 무어의 성벽 밑에서 어떻게 키스했던가 그리고 나의 그이를 글썽 다른 사람만큼은 훌륭하다고 생각했지 그런 다음 나는 그이에게 눈으로 즐라팠지요 다시 한 번 내게 요구하도록 말아야 그래요 그러자 그이는 내게 물었지요 내가 그러세요 라고 말하겠는가 그래요 나의 야산의 꽃이여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나의 팔로 그이의 몸을 감았지 그렇지 그리고 그이를 나에게 끌어 당겼어요 그이가 온갖 향대를 풍기는 나의 젖가슴을 감촉할 수 있도록 말아야 그래요 그러자 그이의 심장이 미칠 듯이 팔딱 거렸어요 그리하여 그렇지 나는 그러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네(Yes) (U 18.1604-12)

여성의 말인 'yes' 는 순종을 암시함으로써 수태와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문을 열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긍정을 유발한다. '야산의 꽃'인 물리의 생명에 대한 'yes'는 니이체(Nietzsche)적인 긍정으로서 생명에 내재하는 'yes'와 다를 바 없다(Valente 89). 자신의 육체 안에 'yes' 를 소유하는 물리는 불륨과 스티븐을 개별화함으로써 조이스가 그들을 불멸의 예술가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의미 또는 가치를 포용하는 'yes'는 그 자체의 증거가 되어 모든 의미와 가치를 떠맡음으로써(Valente 89), 『율리시스』의 육체의 시학이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이스의 소설미학이 『율리시스』를 끝맺는 'yes'로 완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율리시스』의 존재론적 양식을 긍정하는 'yes'는 그것을 패러디하는 『피네간의 경야』에서 재구성됨으로써 닫힌 결말이 아닌 열린 결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율리시스』에서 물리의 'yes' 의 반복은 『피네간의 경야』에서 'Oyes'의 반복(Oyes! Oyeses! Oyesesyeses! FW 604.22)으로 고쳐 씌어진다. 이 'Oyes' 역시 'yes'와 마찬가지로 타자의 목소리로서 법과 질서의 목소리이다. 조이스는 『피네간의 경야』에서 『율리시스』의 긍정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텍스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질서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 역시 불륨과 마찬가지로 영원으로 들어가 불멸의 예술가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이스의 소설들은 기존의 전통적 소설들과는 달리 닫힌 결말이 아닌 열린 결말을 지향한다. 열린 결말의 제시는 조이스 소설 자체의 불확정성의 요소와 더불어 독자가 능동적으로 조이스의 소설미학의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독자는 텍스트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의 의미를 재창조함으로써 텍스트를 ‘고쳐 쓰는’(re-write), 작가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Thomas 5). 『더블린 사람들』의 한 단편으로 계획되었던 『율리시스』가 이미 씌어진 것을 읽고 ‘다시 읽는’(re-read), 조이스의 수동적 독서 행위를 통해 “그것이 점점 커졌던”(U 8.783), 지속적인 『율리시스』의 확장과정은 조이스 소설들에 있어서 독자의 능동적 역할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특히 조이스 소설들의 파편화된 삼화적 속성들은 비늘무늬 모양으로 겹친 많은 문체들과 언어들 해석하고 재구성함에 있어서 능동적인 독자의 역할을 더욱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Brown 32). 그러나 조이스의 작품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읽으면서 열린 결말의 구성에 참여하는 독자의 능동성은 조이스의 소설미학의 창조를 지향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대림대)

인용문헌

- Bowen, Zack. "Joyce and the Epiphany Concept: New Approach."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9.1 (1981/82): 103-14.
- Brown, Richard. *James Joyce: A Post-Culturalist Perspective*. London: Macmillan, 1992.
- Day, Robert Adams. "Dante, Ibsen, Joyce, Epiphanies and the Art of Memory." *James Joyce Quarterly* 24.7 (Fall 1987): 357-62.
- French, Marilyn. *The Book as a World: James Joyce's Uly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 Gilbert, Stuart. *James Joyce's Ulysses*. New York: Vintage Books, 1958.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s.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 _____. *Finnegans Wake*. London: Faber & Faber, 1975.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I. Ed. Stuart Gilbert.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7; Vols. II and III. Ed. Richard Ellman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6.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8.
- _____. *Stephen Hero*. Ed. Theodore Spencer. London: Fletcher & Son, 1975.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 Faber, 1975.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s. Hans Walter Gabler *et al.*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 Lanser, Susan S. "Stephen's Diary: The Hero Unveiled." *James Joyce Quarterly* 16.4 (Summer, 1979): 411-18.
- Peake, C.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 Thomas, Brook. "Formal Re-creation: Re-reading and Re-joycing the Re-rightings of *Ulysses*." *The Seventh Joyce*. Ed. Bernard Benstock.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88. 5-9.
- Valente, Joseph. "Beyond Truth and Freedom: The New Faith of Joyce and Nietzsche." *James Joyce Quarterly* 25.1 (Fall, 1987): 87-103.
- Van Boheemen-Saaf, Christine. "Joyce, Derrida, and the Discourse of 'the Other.'" *James Joyce: The Augmented Ninth*. Ed. Bernard Benstock. Bloomington: University of Indiana Press, 1982. 88-101.

Abstract

Re-reading Joyce's Fiction as a Text

Jae-Oh Rheem

Aesthetics of Joyce's novels culminates in their intertextuality. Each of his works appears to be the widest reservoir of texts of our cultural and literary systems, the most comprehensive encyclopedia of western culture, where recurring segments taken from different sources are included. In particular, Joyce elaborates the intertextual strategy within his single works themselves as well as among his various works. The procedure of communicating ideas across the borders of a text's isolated sections and separated texts is familiar to all readers of Joyce, whose works are more or less regularly interspersed with recurrent themes and motifs, inner correspondences, and various other types of verbal crosscuttings. Each of Joyce's fiction also is open-ended. By reshaping these various techniques and artistic strategies aesthetically, Joyce makes his fiction a harmonious wholeness. Therefore, we could re-read all of his novels as a text. The characteristics of Joyce's novels make possible the attainment of their aesthetical form, individually or as a whole.

■ **Key words**: intertextuality, border, a text, recurrent themes, open-ended, aesthetical form (상호텍스트성, 경계선, 하나의 텍스트, 주제의 반복, 열린 결말, 미학적 형식)

논문 접수: 2007년 11월 19일

논문 심사: 2007년 11월 22일

게재 확정: 2007년 12월 13일